

대구벤처기업의 혁신체제 특성과 혁신환경 발전방향

최정수 · 이명희

경북개발연구원 · 한국창업정보센터

1. 서론

본 연구는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파악하고, 벤처기업의 혁신체제 특성을 분석하여, 지역혁신체제적 관점에서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혁신환경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. 이를 위해 대구지역 벤처기업에 대해 2001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76부의 유효설문지를 수집하고, 이의 벤처기업 경영자,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과 면담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.

2. 대구·경북 벤처기업의 현황

대구·경북 벤처기업은 2001년 11월 현재 562개로 우리나라 벤처기업(10,994개)의 약 5.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대구지역에 총 306개가 분포하고 있다. 대구·경북은 서울특별시(48.2%), 경기도(19.9%), 대전·충남(6.9%)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,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창업과 집적이 뒤떨어진 실정이다.

대구·경북 벤처기업의 업종별 구성은 전통제조벤처 42.7%, 첨단제조벤처 38.6%, 소프트웨어벤처 11.6%, 연구개발 및 기타 7.1%의 순이다. 대구·경북은 전통제조벤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, 첨단제조벤처와 소프트웨어벤처의 창업과 집적이 매우 취약하다.

대구·경북 벤처기업의 조직형태는 회사법인(74.5%)과 개인기업(14.5%)이 주를 이루고 있다. 그리고 창업시점을 보면, 22.3%가 1990년 이전에 창업했으며, 1990~1997년 사이에 33.4%, 1998~1999년 사이에 26.2%, 2000년 이후가 18.1%로 나타났다.

고용규모별 현황(2000년)을 보면, 평균 고용자수는 40.1명으로 전국 평균수준과 비슷하다. 그러나 고용규모별 업체 비중에 있어서는 종업원수 10명 이하의 업체가 33.3%, 20명 이하 업체가 53.9%, 30명 이하가 65.2%, 50인 이하가 77.1%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. 자본금 규모별로는 5억원

미만 업체가 49.2%, 5~10억원 미만 업체가 18.3%, 10~20억원 미만 업체가 12.2%, 20~30억원 미만 업체가 5.4%, 30~50억원 미만 업체가 7.8%로서, 자본금 50억원 미만 업체가 92.9%를 차지하고 있다. 대체로 자본금 5억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구성비보다 높아 대구·경북 벤처기업의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알 수 있다. 이와 같이 고용 규모나 자본금 규모를 볼 때 대구·경북의 경우 벤처기업의 중소기업적인 특성이 강하다.

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는 50억원 미만 업체가 70.0%에 달하는데, 이중 10억원 미만의 업체가 36.4%를 차지하여 매출이 부진함을 알 수 있다. 또한 1억원 미만이 11.0%, 1~5억원 미만이 16.4%를 차지하고 한편으로는 50~100억원 미만 업체가 13.3%, 100억원 이상 업체가 16.7%를 차지하여 매출액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.

벤처기업 경영자의 특성을 보면, 창업 당시 연령의 경우 창업 당시 30대인 경우가 40.4%로 가장 높고, 이어 40대(37.9%), 50대(9.1%), 20대(5.8%)의 순으로 나타나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다. 창업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97.1%를 차지하며,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(40.0%), 기타(21.5%), 석사(16.4%), 박사(14.5%)의 순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70.9%에 달한다.

3. 대구 벤처기업의 혁신체제 특성

대구·경북 벤처기업은 2001년 11월 현재 562개로 우리나라 벤처기업(10,994개)의 약 5.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대구지역에 총 306개가 분포하고 있다. 대구·경북은 서울특별시(48.2%), 경기도(19.9%), 대전·충남(6.9%)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,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창업과 집적이 뒤떨어진 실정이다.

대구·경북 벤처기업의 업종별 구성은 전통제조벤처 42.7%, 첨단제조벤처 38.6%, 소프트웨어벤처 11.6%, 연구개발 및 기타 7.1%의 순이다. 대구·경북은 전통제조벤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, 첨단제조벤처와 소프트웨어벤처의 창업과 집적이 매우 취약하다.

대구·경북 벤처기업의 조직형태는 회사법인(74.5%)과 개인기업(14.5%)이 주를 이루고 있다. 그리고 창업시점을 보면, 22.3%가 1990년 이전에 창업했으며, 1990~1997년 사이에 33.4%, 1998~1999년 사이에 26.2%, 2000년 이후가 18.1%로 나타났다.

고용규모별 현황(2000년)을 보면, 평균 고용자수는 40.1명으로 전국 평균수준과 비슷하다. 그러나 고용규모별 업체 비중에 있어서는 종업원수 10명 이하의 업체가 33.3%, 20명 이하 업체가 53.9%, 30명 이하가 65.2%, 50인 이하가 77.1%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. 자본금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 업체가 49.2%, 5~10억원 미만 업체가 18.3%, 10~20억원 미만 업체가 12.2%, 20~30억원 미만 업체가 5.4%, 30~50억원 미만 업체가 7.8%로서, 자본금 50억원 미만 업체가 92.9%를 차지하고 있다. 대체로 자본금 5억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구성비보다 높아 대구·경북

벤처기업의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알 수 있다. 이와 같이 고용 규모나 자본금 규모를 볼 때 대구·경북의 경우 벤처기업의 중소기업적인 특성이 강하다.

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는 50억원 미만 업체가 70.0%에 달하는데, 이중 10억원 미만의 업체가 36.4%를 차지하여 매출이 부진함을 알 수 있다. 또한 1억원 미만이 11.0%, 1~5억원 미만이 16.4%를 차지하고 한편으로는 50~100억원 미만 업체가 13.3%, 100억원 이상 업체가 16.7%를 차지하여 매출액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.

벤처기업 경영자의 특성을 보면, 창업 당시 연령의 경우 창업 당시 30대인 경우가 40.4%로 가장 높고, 이어 40대(37.9%), 50대(9.1%), 20대(5.8%)의 순으로 나타나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다. 창업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97.1%를 차지하며,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(40.0%), 기타(21.5%), 석사(16.4%), 박사(14.5%)의 순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70.9%에 달한다.